

전남대 '살신성인 의사자' 동문 기념조형물 설치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94학번 고 김신 동문 물에 빠진 중학생 두 명 구하고 스물넷에 사망

생명이 위급한 중학생 두 명을 구하고 숨겨 의사자를 기리기 위한 조형물이 모교인 전남대학교에 설치됐다.

전남대 인문대학은 3호관 앞 동산에 국어국문학과 94학번 의사자 고(故) 김신 동문을 기리는 벤치를 설치했다고 1일 밝혔다.

조형물은 '바람이 머무는 벤치'라고 명명했다.

김신 동문은 2000년 7월 영암의 한 저수지에서 물에 빠진 중학생 두 명을 구조하기 위해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두 중학생은 구조됐지만 김신 동문은 의식을 잃고 끝내 스물넷

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타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12월 의사자로 지정했다. 전남대는 2024년 8월 고인에게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조성한 '바람이 머무는 벤치'는 고인의 살신성인 정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 선후배 동문들의 후원으로 마련했다.

고인의 명예졸업 소식이 알려진 뒤 선후배 동문 72명이 후원금을 모아 전남대 발전기금으로 기탁했



전남대 인문대학은 3호관 앞 동산에 국어국문학과 94학번 의사자 고(故) 김신 동문을 기리는 벤치를 설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대 제공

다.

김신을 기억하는 사람들 대표인 김현주 동문은 "우리 곁에 바람처럼 머물다가간 의로운 청년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 벤치를 마련했

다"면서 "고인의 용기와 희생이 후배들에게 인간다움의 가치를 전하는 작은 자리로 남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귀뚜라미 문화재단, 해남 인재육성 장학금 5천만원 전달 해남교육재단은 지난달 29일 해남군청 대회의실에서 귀뚜라미문화재단의 '해남군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모범학생, 저소득 학생 등 중·고·대학생 73명에게 총 5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귀뚜라미그룹의 해남군 장학금 지원은 누적 총 1억6000만원 규모로 이어지고 있다. /해남=김동주 기자



전남국제농업박람회, 해남 오디농가 일손돕기 전남국제농업박람회는 최근 해남 문내면 오디 농가를 찾아 수확 지원과 환경정비 등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펼치고, 직원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호 기자

광주보훈청, 해외 파병용사의 날 위로연...“공헌 감사”

광주·전남·전북 파병용사 과거 전투 임무 공훈 예우



광주지방보훈청은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해외 파병용사의 날 위로연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행사는 광주와 전남·전북에 사는

해외 파병용사의 과거 전투 임무 공훈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파병용사에 대한 예우를 시작으로 파병부대기 입장, 추어의 영상 시청, 장관 표창, 기념사, 기념공연,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사 과정에서는 광주 금파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파병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파병부대기를 들고 행사에 입장하면서 예우를 다했다.

장숙남 광주보훈청장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된 해외 파병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순천청소년수련관 '생물다양성 대탐사' 운영



순천시는 금·토요일 총 4회에 걸쳐 순천시청소년수련관 및 옥천 일원에서 방과후아카데미 초등학생 4~6학년 40명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대탐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연계·지원으로 추진됐다.

참가자들은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곤충류, 포유류, 조류, 어류, 식물류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생태 탐사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조류 탐사 프로그램에서는 야외 조류 관찰과 함께 생태예술행사인 후두루미 춤을 체험하며 자연과 문화예술을 함께 경험했다.

또한 '생물다양성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전시와 체험부스도 운영했다.

전시 공간에서는 동천의 식물종 표본과 우리 지역 민물고기, 토종 씨앗 등을 소개했으며, 체험부스에서는 별종위기종 보드게임, 곤충모형 만들기, 토종 씨앗 나눔, 유리바다 목걸이 만들기 등 다채로운 활동이 진행됐다.

/순천=조준익 기자

나주소방, 신속 대응 '심정지 환자 살려'

시민 초기 대응·구급대원 신속 판단·응급처치 빛나



나주소방서는 나주소포초파크 보조경기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남성을 시민의 초기 대응과 구급대원의 신속한 판단과 팀 단위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며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

소방서에 따르면 5월 30일 오후 5시 53분경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이창119안전센터 구급대(소방교 방인호, 소방교 김지현, 소방사 고대현)는 상황 판단을 하며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환자의 의식과 호흡, 순환 상태를 신속히 확인하고 심정지 상황으로 판단했다. 즉시 심폐소생술과 기도 확보, 산소공급 등 전문응급처치를 시행하며 골든타임 확보에 나섰다.

특히 구급대원들은 환자의 초기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역할 분담해 처치와 이송 준비를 동시에 진행했다.

현장 대원 간 긴밀한 협력과 팀 단위 대응이 원활히 이어지면서 구조대상자가 현장에서 자발순환회복(ROSC)에 성공했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안정화 처치를 받았으며 정밀 검사 결과 심근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체했다.

/나주=최준호 기자

광주시교육청, 기초학력 전담교사 힘 모은다

네트워크 운영...읽기 어려움 지원 사례 공유 등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광주교육대학교 송천국제회의실에서 기초학력전담교사 50명을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기초학력 전담교사 5월 네트워크'를 운영했다.

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강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광주교육대학교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는 기초학력 정책 연구, 관련 연수, 전담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기초학력 전담교사 네트워크를 구성해 매월 연수를 실시하고, 전담교사 간 학생 지도 사례를 공유하는 등 현장 중심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50교도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교대 이경남 교수가 '학습지원 대상학생의 읽기 어려움 관찰과 지원 방향'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어 화성남초 고소교 교사가 1대1 맞춤형 한글 문해력 수업을 공개하고, 학생의 어려움과 학습 결손의 원인을 파악해 맞춤형 지도로 문해력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조선주 기자

이응재 조선이공대학 신임 총장 취임

임기 4년...급변하는 환경 속 대학 혁신 필요성 강조



조선이공대학교는 제13대 총장으로 이응재 총장이 1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30년 5월31일까지 4년이다.

이 총장은 대학 비전으로 '함께하는 오늘, 준비하는 내일, 새로운 대학'을 제시하며 변화하는 고등교육 환경에서 대학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간 경쟁 심화,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

광양교육청, 중3 고교학점제 진로캠프

광양골약중 시작으로 7개교 진로 설계 지원



광양교육청은 광양골약중학교를 시작으로 '2026 전공적합성사를 통한 고교학점제 이해 진로캠프' 운영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관내 중학교 7개교, 3학년 9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학생들이 사전에 실시한 전공적합성사를 기반으로 개인의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맞춤형 진로·진학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프로그램은 총 4차시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구체적으로 ▲계열 및 학과 탐색 ▲학과사전 미션 활동 ▲고교학점제 이해 ▲대학전공적합 검사 결과 해석 ▲진로·진학 설계 등이 진행된다.

특히 캠프에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사전 검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해석 자료와 진학 설계 가이드를 제공해,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 방향을 한층 구체화할 수 있도록도를 예정이다.

/광양=조준익 기자

순천대, 농촌진흥청 추진 공동연구기관 선정

스마트 농업 AI 플랫폼 구축 협력체계 합류



국립순천대학교는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스마트농업 인공지능 실무협의체 '스마트농업 AI 워킹그룹(AIRISE, 아이리즈)'에 참여하며 국가 농업 AI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협력체계에 본격 합류한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농업 AI 워킹그룹은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11개 농업 AI 핵심연구개발(R&D) 과제를 연계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로, ▲플랫폼 ▲시

설연예 ▲식량 ▲과수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순천대는 '표준기반 농업용 개방형 AI 플랫폼 개발 및 활용'을 담당하는 플랫폼 분과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해 농업 데이터 표준화와 AI 서비스 플랫폼 구축 분야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순천대는 플랫폼 분과 내 2개 핵심 과제에 참여한다.

/순천=조준익 기자